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1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54 호

총기 50년 (2021년) 새해 종령 법어

화합과 상생으로 해탈하는 새해



종령 법공 대종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와 교도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널리 비추어져서 일체의 곤란과 액난이 소멸되고, 마음에는 밝고 큰 지혜의 광명이 충만하 시기를 서원합니다.

가슴 속에 평화와 자비가 넘쳐나고, 고난과 괴로움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로써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를 희망하며, 지구촌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지난해 연초에 역사상 유례없는 ‘신 중 코로나19’라는 역병(疫病)으로 전 인류가 일 년 가까이 막심한 고통과 생사를 위협받는 전쟁과 같은 공포에 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모두 코로나 환란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를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총지중으로서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원정 종조님께서 이 땅에 정통불교를 세우신, 창종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백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총지중이 이제 성숙된 저력으로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구현해야 할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승단과 교도는 하나 된 마음으로 오직 실천으로 종조님께 보은해야 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크나큰 시련은 우리 총지중으로서 창종 50년사의

대 시련 고개이며, 앞으로 100년사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이 되는 법계의 대 범문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축년 새해는 가장 의미 깊고 또 한 대망(大望)의 싹을 틔우는 전화위복의 역사적인 한 해가 되도록 다짐 하고 또 다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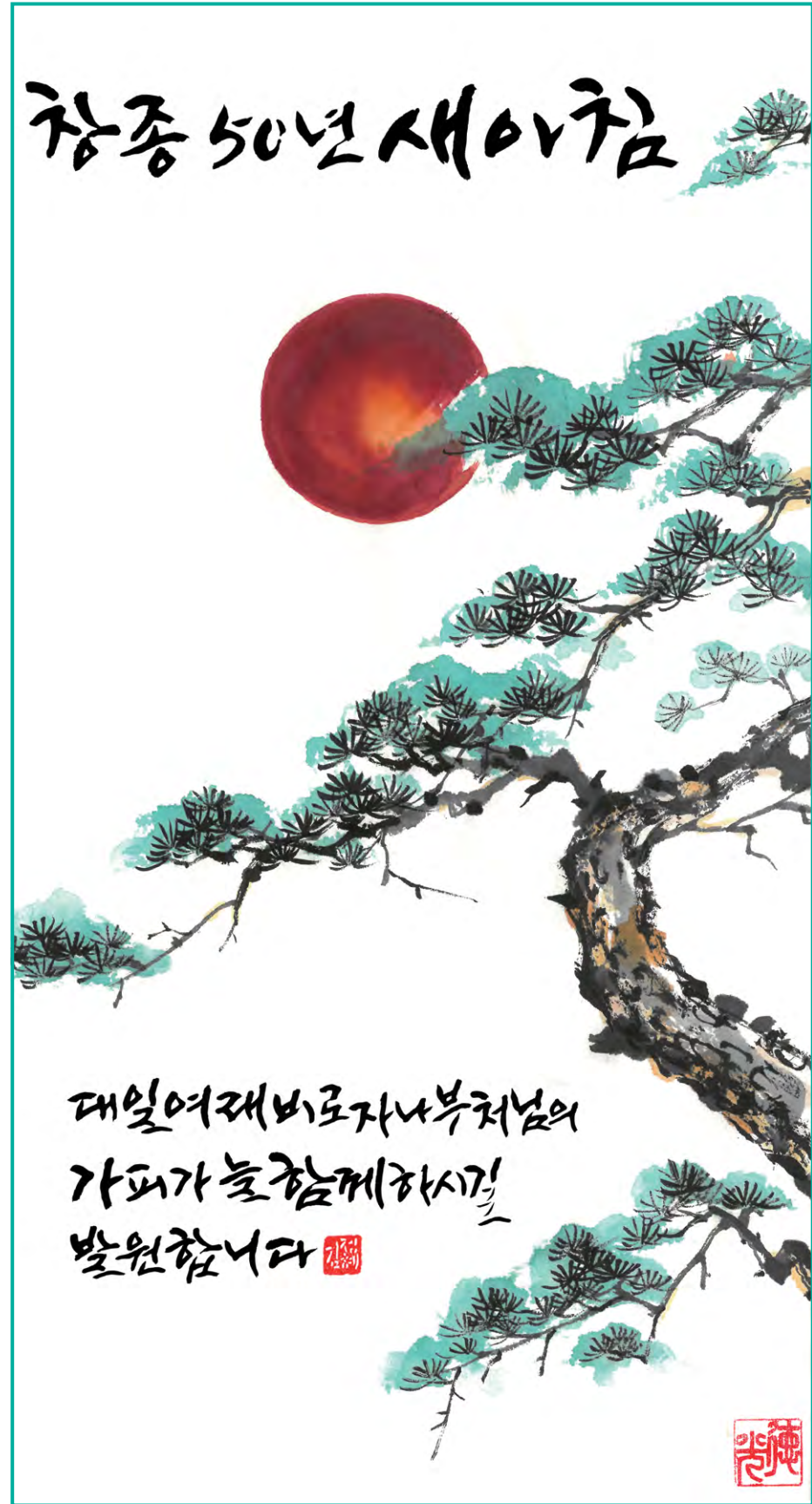
금년은 신축년 소띠 해입니다. 12간 지 가운데 소는 강하고 부지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신축은 하얀 소에 해당하며 흰 소는 신성(神聖)을 상징하므로, 상서로운 기운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에 어려움이 컸던 만큼 올해에는 일체의 곤란과 액난이 일어나지 않고, 일체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져 안락과 평온이 넘쳐나기를 희망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합된 마음으로 서로서 도와가면서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난관을 헤쳐나가는 길은 화합과 상생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합과 상생은 동체대비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닌, 한 몸임을 깨쳐 알아 서로 돕고 협조하며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공생(共生)할 수 없으며 모두가 공멸(共滅)하게 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망심(妄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공업중생(共業衆生)의 죄업과 망심을 끊는 길은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공동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소’가 지닌 품성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함과 강건함, 용맹정진으로써 난관을 극복해나갑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 차고, 새해 아침의 밝은 태양처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충만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오마니반메후.



‘창종50년 새아침’ 덕광 정사 그림, 캘리그래퍼 김정혜 씀

신축년(辛丑年) 통리원장 신년사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자



통리원장 인선 정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라옵건대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加持神力)이 우리 불자들의 가정에 언제나 깃들여 복덕과 지혜가 창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도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인류의 고통은 그 어느 때 보다 심했습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화마로 인류 문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바이러스의 반복과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기대어 자신과 세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교도 여러분
올해 총지중은 창종 50년을 맞이합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공을 강조하시면서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을 설하셨습니다. 불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참된 생활, 그 자체가 ‘불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불자들은 더욱 철저히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축년은 흰 소의 해입니다. 소는 불교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동물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자(太子)로 계실 때

‘최상의 소’라는 뜻의 고타마라는 성(姓)씨였으며, 마음 닦는 과정을 소 찾는 과정으로 묘사한 심우도는 청정한 자신의 성품을 흰 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또한 자신의 본래 성품인 흰 소를 찾기 위해 정진하며, 뭇 중생들을 위해 서원(誓願)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간다면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 세계의 당당한 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 올 한해도 모든 불자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 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종/조/법/어

부처님께 공양하면 큰 복덕을 얻게 되고 바른 법에 공양하면 지혜가 곧 증장한다

지 면 안 내

- 2면 교계 신년 법어
- 4면 교계 신년사
- 8면 밀교란 무엇인가<1>
김재동 연구원
- 10면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1>

신축년 새해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0년(2021년) 1월 4일(월)~10일(일)

장소 _ 전국 각 사원 서원당

2단계

- 1. 좌석수 20%내 법회 운영
- 2. 식사제공 금지

2.5단계

- 1. 비대면 법회 원칙
- 2. 식사제공 금지
- 3. 개인정진 위주로 진행

※ 지자체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원융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

발생한 질병은, 인간내면(人間內面)의 정신세계는 등한시하고 오직 물질과 편의(便宜)만을 추구한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심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공포와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圓融)과 상생(相生)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위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합니다.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나 혼자 행복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행복(相生幸福)을 만들어 갑니다.

나고 날 적마다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하고 간절히 참구(參究)하고 또 참구하여 진정한 참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참나를 깨달으면 그곳에는 시비(是非)도 없고 분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우주법계(宇宙法界)는 인드라망이요, 연기(緣起)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계가 한 집안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돌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이므로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땅을 밟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생태의 파괴는 곧 인류의 자기 훼손입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반목, 대립과 분열을 물리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원융

人生百年如浮雲(인생백년여부운) 箇中有人勤精進(개중유인근정진) 匆忙之中明此事(홍망지중명차사) 歷劫不昧安穩樂(역겁불매안온락)

인생 백 년이 뜬구름과 같으나 그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이 있어 바쁜 중에도 이 일을 밝혀낸다면 역겁에 매이지 않고 편안한 낙을 누리리라.

나날이 새 아침이건만 묵은해를 보내고 신축년(辛丑年)의 새 아침에, 떠오르는 광명(光明)이 부처님의 법음(法音)으로 화(化)하여 천둥으로 울리고 번개의 섬광(閃光)으로 온 세상에 무차(無遮)로 비추니, 산하대지(山河大地)가 그대로 화장세계(華藏世界)이고 태평성세(太平盛世)입니다.

거년(去年)에 전(全) 세계적으로



대한불교진각종 종인 정정 정사

화합과 동참의 시대를 열자

여법如法하게 지속하여 즉신성불과 현세정화의 서원을 새롭게 합니다.

만물은 화합에서 생성하여 천차만별이라도 법계는 일여一如여서 본래 화합상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여 배려하고 동참하면 이웃이 어울려서 평등 사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인류는 미증유의 질병을 경험하며 생업이 험난하고 생명이 지쳐 위태합니다.

탐욕과 오만의 인과를 먼저 깨쳐 참회하고 생태를 보살피서 병역의

고리를 막아냅니다.

종교인이 상승(相乘)의 교화를 살려 내면 정치가는 상보(相補)의 정책으로 정론하고 경제계가 상생(相生)의 경쟁을 궁구하여 온화한 웃음이 넘치는 시대가 기다립니다.

금년 새해에는 병病 빈貧 정靜의 아픔을 넘어 따뜻한 손길로 함께 보듬어 갑시다.



새해에도 태양은 동녘에 떠올랐습니다.

대일법신의 혜광(慧光)이 사바의 아픔을 걷어내고 온 세상에 밝고 맑은 서기瑞氣가 샘솟아서 화합과 동참의 희망이 항상 하길 서원합니다.

심인진리의 종문이 불법의 새 지평을 열고 생활 중에서 깨달아가는 방편을 베풀었으니 불교의 혁신불사를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법의 향기로 마음 가득채워

지혜의 광명이 빛나는 자리에 흔적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불심이 깃들여있으니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삶이 빛난다면 깨달음의 도량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서

부처님을 보며 법의 향기로 마음을 가득 채워 모든 이웃을 공경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실 것입니다.

공덕을 온 누리에 두루 나누며 국민안과 인류의 평화를 발원하며 화합과 기쁨의 새해를 열어가십시오.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어지럽게 날라리는 눈보라도 쉼 새 없이 일어나는 중생의 번뇌도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새해가 어디서 왔는가?

가고 오는 것 봄날 꿈이로다. 늙고 험벗은 중은 편해서 일이 없으니 땀나루 등에 지고 산길 내려오네.

경청(鏡淸)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새해 첫머리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님이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새해 첫머리 불법입니까?”

선사가 대답하기를 “설날 아침에 복을 비드니라” 하였다.

스님이 말하기를 “선사님께서 대답해 주신 데에 감사합니다.”

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경청(鏡淸)이 오늘 손해를 당하였구나” 하였다.

또 어떤 스님이 명교(明敎) 선사에게 묻기를 “새해 첫머리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하니 명교(明敎) 선사가 대답하기를 “없느니라” 하였다.

스님이 다시 묻기를 “년년시호년(年年是好年)이요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라 해마다 좋은 해요 날마다 좋은 날인데 어찌 없다하십니까?”

하니 명교(明敎) 선사가 “장씨(張氏) 노인이 술을 마셨는데 이씨(李氏) 노인이 취했느니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스님이 말하기를 “늙고 늙어서 크고 큰가했더니 용머리에 뱀 꼬리 같구나” 하니 명교(明敎) 선사가 말하기를 “명교(明敎)가 오늘 손해를 당하였구나” 하였다 한다.

사부대중들이여 대중들에게 옛 조사스님들의 신년대화(新年對話)를 이와 같이 전하였다.

이 또한 어떠한가. 한 번 지극히 살펴보기 바란다.

묻고 대답하는 근본을 알아야 살펴보는 것이다.

근본을 모르고 묻고 답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벗어 나지 못한 헛된 망상의 대화에 그치고 만다.

이는 나뭇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힘차 보이지만 뿌리가 없으면 곧 말라 죽을 뿐이다.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집안에는 참구(參究)라는 뿌리가 유일(有一)하다.

이를 달마대사의 소림면벽(小林面壁)의 가풍(家風)이라 한다.

묻는 물음에도 대답하는 대답에도 이러한건 저러하건 새해가 오건 이는 물결이요 참구는 물이다.

물결은 물을 떠날 수 없고 물은 물결을 이루지만 물이 근본이요 전부다.

중략

사부대중들이여!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하니 내용이 충만하고 보기도 아름다운 큰 복(福)을 새해를 맞이하여 가득 받기 바란다.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1차 2021년 1월 1일~ 2월 28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총기 49년 창교절 기념법회 엄숙히 봉행

종조 가르침, 삼밀과 육행의 창종정신 계승



본산 총지사 49년 창교절을 맞아 주교 원당 정사와 묘심해 전수가 서원당에서 불공 중이다.

창종 반세기에 앞서 총기 49년 창교절 기념 법회가 창교절인 12월 24일 오전 10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코로나19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교도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원 주교와 스승들만이 조용하면서 엄숙하게 불공을 마쳤다.

1972년 12월 24일 종조 원정대성사는 ‘법신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을 본존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아,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을 포함하는 「입교개종의 정신」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시시불

공, 처처불공법으로 생활시불법 불법시생활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안을 세움으로서 교상이 확립되고 입교교의를 이에 두었다.’고 천명했다.

창교절 유시문에서 종령 법공 예하는 “한국불교에 밀교를 새롭게 탄생시킨 원정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되새기며, 제 2의 창종을 위해 승속 모두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일은 창종 즈음하여 모든 종도들이 견지해야 할 기본자세”라고 전제하고, “부처님께서 시설하시고, 종조님께서 강설하신 육행의 실천은 전 세계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휼법이라 할 수 있다”며, 창종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교도들이 동참하지 못해 아쉽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가정에서나 각 사원에서 창교절을 봉축하고, 창교정신을 되새겼을 것”이라며, “올해 맞이하는 50년 창교절 법회는 사부대중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융맹정진 서원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2월 22일 이철규 화백이 수유동 작업실에서 통리원장과 집행부에게 종조 진영 작업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선각자의 참모습 고스란히 화폭에

종조 원정대성사 새 진영, 곧 사부대중 앞으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진영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통리원 부장들에게 우선 공개됐다. 지난해 5월부터 작업에 들어간 이철규 화백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작업실로 종단 관계자들을 초청해 대성사의 진영을 선보이며 작업과정을 설명하고, 스승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서 진영을 친견한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원정대성사님의 소탈하고 편안한 모습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당시 교화하던 모습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수행에 원력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원정대성사의 새 진영은 표구가 끝나는 대로 올 초 사부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박재원 기자

종립 동해중학교 ‘청림2020’ 우수학교 선정



동해중 송인근 교장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선정하는 2020년 학교 청림노력도 평가에서 사립학교 분야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청림! 부산교육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는 모토로 지난 한해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청림 노력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사립 중학교 35개 중 단 2곳을 우수 학교로 선정하였다.

송인근 교장은 “종립학교로서 품위와 교풍을 유지하는데 늘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며,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수 학교가 된 동해중학교는 이번 선정으로 오는 2022년 2월까지 공직 기강 북무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 받게 되었다.

본산 총지사 예비스승 사령장 수여



지난해 10월부터 시무(예비스승)교육이 진행 중인 가운데 12월 24일 창교절을 맞이하여, 시무 4인에 대한 총지사 시무 근무 사령장이 수여되었다. 왼쪽부터 우애란, 이한상 시무, 원당 정사, 묘심해 전수, 박진용, 이현희 시무

통리원 우수 종무원 재무부 유영신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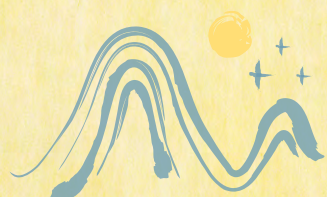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30일 통리원 종무식에서 유영신 계장이 2020년도 우수 종무원으로 선정되었다. 유 계장은 2016년 입사, 2020년도 계장 승진, 현재 재무부에서 근무중이다. 평소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격려금이 전달되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신축년 한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경남신정회 지회장 류길자
각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부처님의 가피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대구경북신정회 지회장 황월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청전라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중앙총의회의장 우인 정사

자기 마음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용사

날을 기대해 봅니다.

신축년 새해는 소파해로서 정직하고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바르고 성실한 용맹정진이 요구됩니다. 법구경에 자기 마음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자기의 그릇된 마음이 주는 해가 더 크며, 어느 누구보다 자기의 정직한 마음이 주는 복이 더 크며, 지혜로운 사람은 못사람의 비

방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 즐겁고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올해에는 바르게 용맹정진하셔서 자기 마음 이기는 용사가 되어 즐겁고 편안함을 누리시고 항상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불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



서울경인교구장 록경 정사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

다 합시다.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이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그간 우리는 편의주의에 도취되고 이기심에 빠져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질주하듯 사느라 중중제망의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경자년 한해를 살아오면서 언제든, 어느 곳이든, 어떤 인연이든 간에 나의 따뜻한 눈빛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나 약간의 힘을 필요로 했으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핑계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참회하며 다른 사람의 가벼운 한숨에도 자비심을 일으키는 동체대비행을 실천합니다.

소소한 모든 일상들이 행복 그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지랑이 쫓듯, 물고기가 물속에서 갈증 느끼듯 만족을 모르고 탐욕심으로 살아온 나날들을 참회하며 소욕지족으로 진정한 행복을 아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풀잎 하나에도 우주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땅, 물, 바람, 태양을 비롯한 모든 자연에 감사는커녕 우선 편한 것에 젖어 일회용품 등으로 환경 훼손에 일조한 것에 대한 참회와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진리의 땅이 되도록

록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며 쉽고 편리함에 길들여진 생활방식을 차차 바꾸어 봅시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불안해하는 작금의 상황에 어느 때, 어느 곳, 누구에게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섭법(생명평화운동)을 실천하는 진실한 불자가 됩시다.

우리 국민의 DNA에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력이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희망찬 한 해가 되려면 우주 법계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답게 불자다운 실천(사섭법) 및 정부 지침대로 생활방역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무진서원을 하면 반드시 희망찬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 신축년은 흰 소의 해입니다. 소는 부지런함, 인내심, 참을성을 상징하며 특히 흰 소는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수성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 흰 소의 기운을 듬뿍 받으면서 다 함께 용기를 냅시다!

불자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성숙한 불자로 신축년 새해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길 부처님 전에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대구경북교구장 법상 정사

은혜를 갚는 길, 남에게 베푸는 길

정신으로 생활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상호 의존적 관계와 상호 연관적 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 연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부터 자신의 삶에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자신도 남에게 베푸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총지종이 창종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종단이 이치럼 알차게 발전한 것은 그동안 모든 승직자와 교도가 합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올 한해도 사회를 지도하는 훌륭한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사감원장 법경 정사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를 껴고 있지만 그래도 금년에는 신축이 지닌 의미처럼 신성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사바세계에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소는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가 지닌 품성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성실하고 항상 정직하며 진중한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는 책임감도 높아 일단 시작하면 꾸준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

나 반대로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서 지나치게 완고한 성격으로 변하여 고집이 강하고 소통이 안 되는 성품을 지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소가 지닌 우직함은 부지런하고 퇴전이 없는 수행과 생활의 바탕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불공과 신심에서도 진취적이고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써 한 걸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에는 서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부처님의 법은(法恩)과 은덕(恩德)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옴마니반메흠.



부산경남교구장 정인화 정수

인욕과 하심을 실천합시다

고통과 괴로움도 인욕하고 정진하는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렵다 힘들다고 되뇌면, 그것이 곧 인(因)이 되고 업(業)이 되어 결국 과(果)가 되고 보(報)가 되고 맙니다. 임으로 마음으론 인과 업을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곧 말이 되고, 말이 씨가 되는 법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인욕과 하심을 실천하고 정진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먼저 우리를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냄과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데서는 인욕과 하심, 정진은 요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인욕과 하심이며, 그러한 노력이 실

천이며 정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남의 몸과 입과 뜻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를 삼업청정(三業淸淨)이라고 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삼업청정이며, 이것이 곧 지계(淸淨持戒)입니다. 삼업청정의 지계에서 업장소멸, 소원성취, 나아가 지혜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으며, 인욕과 정진 또한 가능해집니다.

새해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실천을 통해 신축년에는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옴마니반메흠.

충청전라교구 총무 해광 정사

새해, 새집을 짓자

고 기운을 차린 후 흔들림 없이 수행하여 드디어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부처님도 건강을 소중하게 하셨습니다. 교도님들도 건강해야 불공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수행과 자유를 줍니다.

올해는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입니다.

소의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한 눈 팔지 말고 소처럼 우직하게 묵묵히 공부하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신축년 인데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신축'이라는 단어가 먼저 연상됩니다.

새해에는 자신이 지어온 잘못된 습관과 버릇, 고집과 편견을 모두 철거하여 없애도록 합니다. 그 터전위해 부처님의 진리로 배운 좋은 생각과

행동을 기둥으로 삼으십시오. 가족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과 정원을 지어 나아갑시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설계의 뜻으로 새해를 이어 나갑시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몇십 년의 버릇과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건물을 지으려면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하루하루 차곡차곡 없애고 벽돌을 쌓아가듯 시간을 갖고 바꾸어 갑시다. 부처님께서도 고행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에 수행방법을 바꾸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잘못된 생각과 버릇을 버립니다. 그리고 소처럼 우직스럽게 수행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 건강한 수행생활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합니다. 옴마니반메흠.

네란자라 강가로 내려와 몸을 깨끗이 씻고 수자타가 준 우유죽을 드시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8>

알아차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알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물론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념적인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해석, 정의, 묘사, 이야기를 알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얇이 수행에서 말하는 바른 알아차림은 아닙니다. 수행에서 말하는 바른 알아차림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견해입니다. 맨 처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란 바른 견해가 주어집니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알아차림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가 무엇인지,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갑니다. 이런 지혜는 바른 견해를 일으킬 때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마음에 작용합니다. 이 지혜의 작용으로 인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이 느껴지고 좀 가벼워진 듯이 느껴집니다.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생겨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바르게 된 것입니다.

수행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붓다께서는 수행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그것을 그것 자체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란 것을 이해한 마음은 일어나는 것을 그것 자체로 알아차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지고 알아차림 수행을 하게 되면 조금씩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대상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이 후 그 대상을 알아차림 할 때의 바른 견해가 됩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상을 좀 더 바르게 알아차림 하게 됩니다. 대상을 바르게 보면 불수록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갑니다.

바른 알아차림의 대상은 실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실재하는 법의 특성입니다. 실재하는 법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행하면서 우선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을 각각 따로 따로 알아갑니다. 가볍고 자유롭게 알아갑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능숙해지면 한 순간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알 때 나는 각각 하나 하나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되었을 때 마음의 아는 작용이 이해됩니다. 우리는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안다는 것이 이해되는지를 체크해봅니다. 안다고 수궁되면 바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마음의 작용은 어떤 모양,

형태, 위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작용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념화되지 않으면서 고유한 성질과 작용으로 존재하는 것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수행의 점차에서는 아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했을 때 실재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실재하는 법은 아는 마음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실재하는 법 가운데 모든 마음의 작용들과 언제나 함께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작용이 아는 작용이어서 우리는 이 마음의 아는 작용을 기본적인 수행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신심, 노력, 지혜, 마음의 고요함, 알아차림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좋은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원인과 결과

의 관계에 의해 균형 있게 개발되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주체적으로 해가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대상과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화를 알게 되면 화와 화를 아는 마음 사이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동요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바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고요함의 힘이 커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됩니다. 실재하는 법인 마음의 아는 작용을 좀 더 분명히 알아차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의 작용을 이해하면서 정말 좋은 마음이 생기는 구나, 이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로인해 신심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신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심이 생기면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신심으로 인해서 노력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력의 힘이 생기면 더 알아차림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좋은 마음은 서로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습니다. 빠르게 수행하면 서로 균형 있게 5가지 좋은 마음의 요소가 함께 개발되어 갑니다.

나쁜 마음이란?

그 마음이 있을 때 괴로운 느낌을 가져오는 마음을 나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들은 크게 욕심, 화, 어리석음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 마음들도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조건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자신의 작용을 하면서 일어난 법입니다. 마음의 느낌이 좋지 않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라고 합니다.

화

세 가지 마음 가운데 가장 나 자신과의 동일시가 약한 마음이 화입니다. 나와 동일시가 약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아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쉽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쉽게 자신이 화가 났을 때 화났다는

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은 제 3자에게 가서 내가 화난 사람의 험담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화난 사람을 주제로 3자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험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입이 근질근질 합니다. 결국에는 험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화의 성질입니다.

이런 화는 우리에게 쉽게 알아지는 화입니다. 실재하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화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안 일화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남방스님으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대중스님들과 탁발을 나갔습니다. 맨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탁발하는 스님들이 앞줄과 뒷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때 내가 ‘왜 뒷줄 맨 앞의 스님이 앞줄을 빨리 따라가지 않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이 화가 한 생각이라는 것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 있을 때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마음입니다.

화의 기본적인 성질은 피하려는 성질, 없애려는 성질, 괴롭히려는 성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화가 어떤 작용을 하는 지 보십시오. 그 사람 욕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 지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실패해서 망해가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화가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일어난 마음이 보는 작용을 하듯이 화는 일어나면 부수고 괴롭히고 없애려고 합니다.

화는 항상 스스로 더 커지려고 하고 다른 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한 번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은 화가 난 상황에 대해서 더 안 좋게 해석합니다. 그 상황을 더 안 좋게 해석하면서 더욱 크게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은 그 사람을 실재보다 더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고는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괴롭도록 생각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화는 자신이 다른 이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 화

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일상에서 수많은 화를 내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 법당에 들어오니 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불이 켜져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생각한 것입니다. 신발이 서로 삐뚤게 놓여 있습니다. ‘왜 저렇게 놓여 있지?’ 화가 한 생각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과 상황이 조금만 달라도 마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는 다양한 형제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초조, 슬픔, 우울과 같은 마음들은 모두 다 화와 같은 성질의 마음들입니다. <다음호에 이어>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

청소년 겨울스키 수련법회

총기 41년(2012년) 1월 26일 ~ 28일

장소 :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
참가인원 : 승직자 8명, 종무원 9명, 바라밀 지도교사 1명, 청소년 67명, 기자 1명, 총 86명

종단협 임원 초청
청와대 오찬

총기 42년(2013년) 1월 14일

기로스승 진원식,
기로그사 수여식

총기 42년(2013년) 1월 15일

장소 : 총지사 서원당
대상 : 심지장 전수, 원송 정사, 인법계 전수, 연등원 전수

불교방송

통리원장 신년대담

총기 42년(2013년) 1월 16일

청소년 겨울스키 수련법회

총기 42년(2013년) 1월 21일 ~ 23일

장소 :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참가인원 : 승직 6명, 종무원 16명, 청소년 76명

새해불공

설법집(제2집) 배포

총기 43년(2014년) 1월 2일



연명의료 32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

법상 정사

‘죽음의 의료화’ 현상으로 인해 인간의 죽음은 뇌사나 심폐사 등 의학적 죽음 이해만 고려하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달라야 라마도 ‘죽음은 육신이란 낡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은 육신의 죽음일 뿐이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의 질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임종 직전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도 부족하다. 행복한 죽음은 행복한 삶 이상으로 중요하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삶과 죽음을 가르치는 생명 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생명 교육은 삶의 준비교육이며, 곧 죽음 준비교육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학교와 사회에서 생명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죽음의 질 1위인 대만에서는 2005년부터 고등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매주 2시간씩 생명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생명 교육을 교육 과정 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은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언론에서 ‘웰다잉법’, ‘존엄사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고 바로 ‘웰다잉’일 수는 없다. WHO에서 호스피스 돌봄은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보살핌으로 분명히 규정했으므로 죽음 역시 뇌사나 심폐사처럼 육체적 기준으로 판정하기엔 충분하지 않으며, 의학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호스피스 전문가도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뤄져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지적한다. 이 법을 준비하면

서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인간의 죽음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영적 돌봄은 아무 의미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WHO 규정대로 죽음을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웰다잉이 가능할 것이다.

웰다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 다른 무엇보다도 죽음을 잘 알아야 한다. 심폐사와 뇌사는 죽음을 판정하는 의학적 기준일 뿐이므로, 소음 이해의 일부에 불과하다. 육체가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죽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불가능할 수 있다.

②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죽음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사전 의료의향서’, ‘사전 장례의향서’를 미리 준비하고, 유서를 작성해 매년 연말연시에 읽어보고 수정해야 한다.

③ 평소 죽음을 주제로 당사자와 가족 간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죽음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임종 방식을 가족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미리 받아두는 게 좋다.

④ 죽음이 자신에게 임박했을 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앞의 3가지를 평소 준비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수용할 수 있을까?

⑤ 가족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임종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수용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임종을 맞는 사람이 가족에게 어떻게 작별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 매년 약 28만여 명이 임종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얼마나 될까?



심보이야기 15

법선 정사

제8식의 3단계, 삼위(三位)

제8식에 대해서는 수행단계에 따라서 나누어 설명한다. 제8식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유식학에서는 삼위(三位)로 설명하는데, 삼위는 세 가지의 단계이다.

첫 번째는 아애(我愛)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집장하는 작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며, 아애의 집장이 현행한다고 하여 아애집장현행위(我愛執藏現行位)라 한다. 제7식이 제8식을 자아로 집장하는 집장의 작용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계는 대승보살의 제7지까지 해당된다. 그러므로 대승보살의 심지 수행과정에서 제7지까지는 아직까지 자아라는 집착이 남아있는 단계에 해당하며, 제8식 중에서 자아에 대한 집장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아뢰야식이 아직 남아있는 단계를 말한다.

두 번째는 보살의 제8지부터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전에 있었던 선악에 대한 과보만 남아서 지속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악업과위(善惡業果位)라 한다. 이것은 선악이라는 자기가 지은바 원인에 대한 과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 경우는 보살의 제8지 이상 제10지까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선악의 과보가 남아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런 경우는 아애로써 집장하는 상태를 벗어난 단계이다. 왜냐하면 제7식에 의해서 자아로 집장되어지는 대상이 되는 아뢰야식이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아뢰야식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제7식이 더이상 자아로 집장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아애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무아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서 아집(我執)을 벗고, 아공(我空)을 얻음으로써, 번뇌의 장애인 번뇌장(煩惱障)이 단절하게 되므로 해탈의 뛰

어난 과보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선악업과에 대한 과보는 남아있어서 그 결과를 받아야 하는 위치이기에 선악업과위라 한다. 또한 제8식 중에 집장의 뜻이 강한 아뢰야식이 끊어졌기에 이 단계부터는 제8식을 아뢰야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과보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선악업과위라 한다.

제8식 이상의 보살들에게는 제8식을 아뢰야식이라 하지 않고, 과보가 남아있다는 뜻에서 제8식의 과상의 이름인 이숙식(異熟識 : Vipaka)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제8식을 아뢰야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생의 유루심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우리들의 심식 중에 아집의 유루심이 남아있는 제7지 보살의 이전단계가 중요하기에 아뢰야식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상속집지위(相續執持位)다. 상속집지위는 범부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제8식이 종자를 집지하여 지속하는 위치이다. 상속(相續)은 지속된다는 의미이며, 집지(執持)는 지닌다는 뜻이다. 따라서 범부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유루의 종자와 무루의 종자를 함께 지속해서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기 때문에 범부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제8식 속에 업력을 저장하는 유루종자를 지니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유루의 종자를 버리고 무루의 종자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유루와 무루의 종자를 함께 지니는 가장 포괄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때 제8식의 이름은 종자를 지니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집지식(執持識 : Adana)이라 한다.

제8식은 세 가지의 단계에 따라서 그 이름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애에 대한 집장이 현행하고 있는 보살 제7지까지는 아집의 종자가 남아있기에 아뢰야식(阿賴耶識 : Alaya)이라 하고, 제8지 이상의 보

살들에서는 유루의 번뇌가 끊어지고 선과 악의 과보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숙식(異熟識 : Vipaka)이라 하고, 범부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유루와 무루의 종자를 모두 상속하여 집지한다는 점에서 집지식(執持識 : Adana)이라 한다. 이렇게 제8식은 그 작용과 단계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서 시급하게 끊어야 하는 세속의 번뇌를 설명할 수 있는 아애집장의 의미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제8식을 아뢰야식으로 통칭하고 있다.

우리 범부들은 수행을 거듭해 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내면을 고양시켜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진리를 체득하는 단계를 견도(見道)라 하여 심지로 보면 초지의 최초의 마음, 즉 입심(入心)을 말하며 그 이후의 수행을 수도(修道)라 한다. 이 단계에서 수많은 번뇌를 하나하나 소멸해서 제10지의 최후의 마음, 즉 금강심에 있어서 모든 번뇌장과 소지장을 소멸해서 다음 순간 불과(佛果)를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불교의 수행은 범부에서 부처가 되기까지의 인격적 발달을 그 본질로 하지만, 여기에서 인격의 발전 향상이란 자기 존재의 근원체인 아뢰야식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

아뢰야식은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라고 하지만, 이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전문적인 용어로 집수(執受)라고 한다. 집수는 개체를 생성시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뢰야식의 인식대상은 집수와 기제간이며, 아뢰야식은 몸과 마음의 주체가 된다.

이와 같은 생리적, 유기적 관계를 안위동일(安危同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안위동일이란 어느 한쪽이 양호한 상태면 다른 쪽도 양호하고, 어느 한 쪽이 나쁜 상태이면 다른 쪽도 나쁜 상태에 놓인다는 의미이다. 아뢰야식은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I

기로스승 진원식 및 기로그사 수여식

총기 43년(2014년) 1월 16일

장소 : 총지사 서원당
대상 : 지공, 지광, 경원 정사, 지희심 전수

득락전 제 3차 주교회의

총기 44년(2015년) 1월 23일

장소 : 대전 만보사

금가사 및 법의 수여식

총기 44년(2015년) 1월 30일

장소 : 총지사 통리원
대상 : 단향사 해봉 정사

교도 신행체험 녹취 및 수기 공모

총기 47년(2018년) 1월 3일

대상 : 불교 총지종 교도
공모기간 : 총기 47년 4월 30일까지

총지종 가정본존 가지불공 봉행

총기 47년(2018년) 1월 17일

장소 : 총지사 서원당
아사리 : 통리원장 인선 정사
내용 : 가정본존을 휴대가 편리한 소형액자로 제작함

제 4회 한마음캠프

총기 47년(2018년) 1월 22일 ~ 24일

장소 :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대상 :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중 참여희망자
참가인원 : 청소년 70명, 진행 32명, 총 102명

제 5회 한마음캠프

총기 48년(2019년) 1월 22일 ~ 24일

장소 :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밀교란 무엇인가?_밀교의 특징<1>

‘밀교연재’의 원고 제의를 받고 고민이 많았다. 오랫동안 철학과 불교를 공부하였지만, 밀교는 사실 입문자에 가까운 필자는 밀교라는 너무나 넓고 깊은 망망대해에 이제 막 작은 배 하나 띄어 놓은 심경이다. 하지만 근본 마음의 화현인 삼신(三身)의 존재들과 삼세의 부처님들, 수많은 지혜의 스승들과 그리고 존경하는 불교총지종의 스승님들이 별처럼 이정표가 되어 주기에, 밀교의 대해(大海)를 건너가려 한다. <필자 주>

나를 깨어나게 하는 금강저

밀교는 ‘참생명’이다. 밀교의 가르침은 참생명의 본향(本鄉)에서 흘러 나오는 손짓이며, 부름이며,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환히 밝힘’이다. 환히 밝힘은 인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영원한 흔적들을 남기며, 붓다가 찾은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옛길로 인도한다. 그러한 옛길로 이르는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때론 심연(深淵)에서 일어나는 상징과 이미지로, 무아적 구조의 의례로 우리의 심안(心眼)에 만다라의 세계를 펼쳐 놓는다. 그러므로 흔적들은 죽어있는 화석이 아니라 바로 매 순간 눈먼 중생을 깨어나게 하는 생명력으로 우리를 감응의 길로 이르게 한다. 사실 밀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들은 언어의 속성상 ‘물맛’을 아는 ‘혀’가 될 수 없기에, 체험에 이르지 못한다면 백 가지 정의가 나와 무관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깊게 사유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각자가 ‘물맛’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밀교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과거 누군가의 말의 재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깨어나게 하는 금강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밀교연재’를 시작하면서 밀교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 어떤 문을 먼저 열까 생각해 보았다. ‘밀교의 특징’이라는 주제의 문을 먼저 열어 본다. 그 문을 여는 까닭은 밀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적인 윤곽을 위한 대략적인 특징이다.

밀교의 특징을 말할 때 두 가지 갈래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밀교를 만드는 특수 교단의 교판론의 입장과 그리고 대승불교와 밀교의 연속성,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는 입장이다.

법신이 설법, 자성이 곧 법신불

먼저 교판론의 입장인 공해의 『변현밀이교론(辨顯密二教論)』에 제시된 밀교의 특색은 현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법신의 해석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현교경전은 법신이란 계시기는 해도 무형무색(無形無色)한 것이기에 ‘법신불설법(法身不說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밀교경전에서는 법신이란 유형유색(有形有色)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기 ‘법신설법(法身說法)’이라 주장한다. 법신인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다는 것은 매우 깊고 심오한 뜻이 있다. 밀교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밀교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이러한 특징이다. 당장에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이

를 마음속에서 깊게 지니고 생각한다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이해가 깊어진다면 밀교의 여러 문을 관통하는 황금열쇠를 쥐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십주심(十住心)으로 세운 교판이다. 십주심에 대해서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핵심을 다루면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십주심의 전(前) 9단계는 현교의 가르침이며, 그리고 10번째의 마음은 밀교의 가르침이다. 이를 비교 대비한 판식으로, 이 교판의 목적은 현교는 번뇌를 제거하는 방편설일 뿐 비보(秘寶)를 여는 열쇠의 역할은 되지 못하는 데 비해, 밀교는 중생본구(衆生本具)의 만덕을 밝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간은 제각각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마음들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변화무쌍한 것임을 전제한 후,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깨달아 ‘자성즉시법신불(自性即是法身佛)’임을 속히 깨달아 갈 것을 강조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법신설법(法身說法)’과 ‘자성즉시법신불(自性即是法身佛)’ 즉, 법신

이 설법한다는 것과 자성이 곧 법신 불이라는 십주심의 교판은 밀교만의 중요한 특징이라 하겠다.

종교 체험의 세계와 직접 관련

대승불교와 밀교의 연속성, 동질성에 초점을 맞춘 밀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밀교의 특징으로서 첫째로 꼽아야 할 것은 종교 체험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가(瑜伽, yoga)의 행을 통해 대우주(macrocosm)로서의 절대적 존재와 소우주(microcosm)로서의 인간적 존재와의 본질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서 밀교는 출발한다.

대우주 절대자를 범(梵, 브라흐만 Brahman)이라 이름 붙여, 소우주 자기인 아트만과의 불이(不二)를 설파하는 우파니샤드의 세계관은 고대 인도 종교에 공통된 기반이 되었다. 초기불교에서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범천(梵天, 브라흐마Brahma)이라든가 실체로서의 우리는 부정되었다. 그러나 진리를 나타내는 범(dharma)이 그대로 존재(bhāva)를 나타내기까지 확대 해석되었듯이, 초기불교에서도 현상과 실재의 동일성을 그 세계관의 밑바탕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대승불교, 특히 여래장 계통의 사상에서는 영원히 불변하는 실재 세계, 궁극의 진리는 현상계에 편재함

과 동시에 스스로에 내재한다고 설명한다. 절대적인 존재는 우리들의 인식작용이라든가 언어표현을 초월한 것이므로, 말이라든가 문자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대승불교에서는 그것을 편의상 여(如)라든가 진여(眞如), 법성(法性), 혹은 공(空)이라든가 승의(勝義), 본불생(本不生)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밀교에서는 이를 인격적으로 파악하여 법신·대일여래(法身·大日如來, mahāvairocana-tathāgata)라고 부른다.

자기가 대일여래에 휩싸여 있고, 또 자기에게 대일여래가 내재되어 있는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종교 체험의 세계이지 일상 경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석지(分析智)에 근거하는 이해가 아닌, 신비한 직관에 의한다.

이 신비한 직관은 유가(瑜伽)의 관법을 통해 가능하다. 유가관법(瑜伽觀法), 즉 요가(yoga)는 인더스 문명의 유물에도 행자(行者)의 상으로 남아있듯이 그 기원은 오래되었다. 그것은 초기불교 중에서도 선정(dhyāna)으로 도입되었고, 또 대승불교에서는 유가행(yogacāra)으로 정각(正覺)에 이르는 실천체계 속에 짜여 있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사까라(Sakara, 사로루하)

인드라뭇피왕(687-717)의 아들로 유명한 빠드마삼바와와 전기가 교차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까라(Sakara, 혹은 사로루하)이다. 인드라뭇피왕은 오래도록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왕비는 꿈을 꾸었는데, 한 아이가 어깨에 해와 달을 짊어지고, 바닷물을 마시고 수미산을 삼켰으며 우주의 삼계를 밟고 있는 꿈을 꾸었다. 왕비는 학자와 바라문에게 해몽을 요청하여 머지않아 위대한 보살이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 9개월 후 한 아이가 연꽃에서 태어

났다. 여기까지는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밀교승으로 유명한 빠드마삼바와와 전기가 일치하지만 「84성취자전」에는 다른 사연을 전한다. 이후 왕과 왕비에게는 두 아들이 더 생겼지만 머지않아 죽었다. 사람들은 왕국을 가장 나이가 많은 사까라에게 승계토록 하였지만 왕국을 바로 밀의 동생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승려가 되기 위해 슈리다나로 떠났다.

사까라는 도중 관세음보살을 만났는데 보살은 승려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수용신 성취의 방편을 아는지 물었고 이윽고 관세음보살은 사까라에

게 수용신 성취의 수행을 전수하고 사라졌다. 빠드마삼바와가 슈리다나에서 수행하는 동안 라마라는 한 요기가 다가와 만약 사까라가 성취하면 자신에게도 가르쳐 달라는 조건으로 12년간 시봉하기로 약속하고 두 사람은 동굴에서 수행을 시작하였다. 당시 인도에는 큰 기근이 일어나 12년간 계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라마는 스승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량을 조달하고, 자신은 스승이 남긴 음식으로 연명했다. 제자의 여린 모습을 보고 지역에 기근이 든 사실을 알게 된 인 사까라는 강의

여덟 용왕들을 조복하여 큰 비와 식량, 수많은 보석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였다.

이후 스승이 열반에 들 즈음 제자 라마에게 자신을 이어 곧바로 정도에 들지 말고 세상에 남아 중생들을 구할 것을 명령하였고, 라마는 이후 세상에 남아 많은 절들을 세우고 불법을 흥포하였다.

관세음보살이 사까라에게 수용신성취의 수행을 전한 것은 밀교의 유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성취법(sadhana)으로 알려진 수행의계의 원류는 붓다의 선정에서 발견된다. 붓다를 삼계대도사라 일컫는 것은 육계·색계·무색계를 넘나드는 선정에 통달했기 때문이다.

선정이나 유가는 삼매를 통해 색계라는 의식의 우주를 여는 것이다. 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문이 「금

강정경」이며 색구경전이 경전설법의 도량 아니던가? 사까라가 연꽃에 태어난 것은 3부족 가운데 연화부인 관세음보살과 깊은 관계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현교의 보살수행은 지관으로서 번뇌장과 소지장의 상속을 끊고 심지보살에 도달하여 법신을 구축하지만 관세음보살은 수용신의 수습을 통해 밀교수행을 담보하고, 수용신을 갖추어 중생을 구제토록 하였다. 대승불교에서 수용신을 갖추지 않으면 중생을 구하는 신변에 자재할 수 없다. 「대일경」에서 일체지지와 신변을 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84성취자전」을 통해 7, 8세기경 정착된 인도불교의 자취를 요약하면 나란다사, 위끄라마실라사 등의 승원대학을 통해 현밀의 불교학 연구가 성행하였고 밀교는 불교교단의 사

회적 기제로서 관정이나 도량의 개설이 4부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개설되거나, 개인의 성불을 위한 수행은 현교를 통해 계율·구사·반야·중관·인명의 5학을 공부하고, 밀교를 통해 3신을 구축한 수행을 하였다. 「84성취자전」에서 승속이나 신분,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밀교를 수행하고 성취자들은 존중받았다.

붓다시대 인도의 엄격한 신분제를 극복하고 생명의 평등과 본성의 탐구가 천이백여 년 넘게 변함없이 계승된 승가의 면모는 인류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불교교단을 지탱하는 계율과 율학을 한사코 보존했던 인도 조사들의 노력과 희생에 따른 것이지만 오늘날 내봉이란 석학들도 밀교를 오해의 눈으로 보는데 예외가 아니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새해



많이 받으세요



강남구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서초구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강남구
초록어린이집
이지희 원장

성남시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원장

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원장

강남구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원장

서초구
포레스타7어린이집
최유정 원장

강서구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원장

강남구
미미위 세곡키움센터
김민주 센터장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

성남시
양지동 제1복지회관
서영주 관장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우리나라 천 년의 빛, 세계의 빛으로

연등회, 지난해 12월 16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자료사진=2019년도 연등회에 참가한 중단 사부대중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Yeon deunghoe :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가 우리나라에서 21번째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마련된 부스에서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연등회’가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 온 포용성으로 국적,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점과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물고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높이는 모범사례로 꼽았다.

이번 연등회의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2017년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어 3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3월에 유네스코 평가기구에서 심사, 같은 해 11월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으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었으며, 마침내 등재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전서호 기자

“불교발전 위해 교류 협력”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총지종 내방



진각종 제31대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도진 정사가 취임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신임 집행부와 함께 통리원을 내방하고,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집행부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도진 정사는 지난해 11월 10일에 제31대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후 종단협 회장단 종단들을 순차적 방문해왔으며,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는 이번이 첫 회동이다.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과 집행부는 먼저 본산 총지사 서원당을 참배하고, 종조 원정 대성사 기념관을 둘러본 뒤 통리원 종령실에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종단 집행부들과 자리를 같이했다.

전서호 기자



“진각 백년에 신명을 바칠 것”

진각종 제 31대 통리원장 도진 정사 취임

진각종 제31대 통리원장에 도진 정사가 취임했다. 도진 정사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봉행된 취임 법회에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서원 정진하며, 제31대 통리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법신부처님전에 고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도 축전을 보내 “교화의 일선에서 다양한 경험과 인품을 두루 갖춘 도진 정사님을 중심으로 진각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각종=박재원 기자

하현주 박사의
마음 발 가꾸는 이야기
자비정원(慈悲正願)⑦

새해맞이 자비서원

필자는 지난해를 온라인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던 8주간의 하트스마일 명상에서 낯선 외국인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남편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미국인 여성과 대화하는 순간, 잠시나마 진심으로 그 부부가 고통으로부터 회복되어 평화를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고, 그녀의 얼굴이 잔잔한 미소로 차오르는 것을 보며 나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우리가 아주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연결감을 더 강하게 해주기도 했다.

팬데믹이 가져다준 이 연결의 역설 속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왔던 물질적 실체들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된다. 학교라는 공간이, 회사라는 공간이, 나아가 법당이나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까? 꼭 만나고 살을 맞대야만 진정한 만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

없어서 아쉽지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더 본질이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온라인 그물망(network) 위에는 더 큰 본질만이 남고, 부수적이었던 자잘한 것들은 체에 걸려져 내려간다. 공간이라는 관념도, 가까운 관계라는 허상도 체에 걸리진 후 남는 것은 진정한 배움에 대한 열망과 스스로 체득한 깨달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일 것이다.

이처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게 되는 것은 팬데믹이라는 진통을 겪고 난 이후 얻게 될 소중한 결실이다. 공간이라는 제약이 사라지면 배움의 기회가 만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 무엇을 입고 타고, 어디에 사느냐가 더이상 본질 이상으로 평가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물리적으로 좁은 관문 안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험, 평가, 줄 세우기, 서열 매기기도, 보여주기에 급급했던 과도한 형식들도 사실상 그 필요를 덜 하게 될지 모른다.

그보다는 함께 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팬데믹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전염에 대한 민감성과 자각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정서도 전염되고 자동적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수록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 사람이 가진 관관이나 타이틀보다는 그가 어떤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나에게 전해주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개개인의 고유함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던 때, 성적이나 능력, 출신만으로 가치를 매기던 때는 무한한 연결의 가능성 속에서 종식되고 있다. 이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소수의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BTS처럼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올바른 과정과 행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인지 아닌지로 평가받는 때가 오고 있다.

기존의 상투적인 가치들이 검증되고, 전복될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새해를 맞이할 우리에게는 새로운 서원이 필요하다. 변화된 세상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더욱 귀해지는 사회, 소수의 엘리트만이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모순 속에서 소외당하던 이들이 그 힘을 돌려받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서원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인가보다는 그가 어떤 삶의 향기를 가진 사람인지를 더 음미하게 될 것이다. 몇 안 되는 잣대로 선불리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누구나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서원이 모아질 때, 변화는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팬데믹을 통해 우리를 더 연결해주는 결실을 맺기 위해, 새해에는 다음과 같은 자비의 서원을 마음에 새겨보면 어떨까?

나부터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나에게도 조금씩 확장해가기를. 고통받는 이를 만나면 동정이나 아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평온을 염원하기를. 행복한 이를 만나면 시기하지 않고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기를. 우리 모두가 상호의존적인 연결 속에서 매 순간을 함께 하고 있기에 나와 남이 다르지 않게 귀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1월 21일 ~ 1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한영란	12/17	1,000,000
	건화사	법상	12/20 20,000
	관성사	황성녀	11/26 10,000
		인선	12/20 20,000
관음사	김정희	11/27	10,000
	신막심	12/7	10,000
기로스승	해정	11/26	10,000
	법공	12/20	10,000
	공덕성	12/20	10,000
	상지화	12/20	10,000
	수증원	12/20	10,000
	밀공정	12/20	10,000
	총지화	12/20	10,000
	법수원	12/20	10,000
	법지원	12/20	10,000
	일성혜	12/20	10,000
	사홍화	12/20	10,000
	안주화	12/20	10,000
	진일심	12/20	10,000
	시각화	12/20	10,000
단음사	최상관	12/20	10,000
	연등원	12/20	10,000
	전명환	12/5	10,000
	전재환	12/5	10,000
단행사	신말심	12/7	20,000
	지홍	12/14	10,000

동해사	김진화	12/13	10,000
	법선	12/20	10,000
만보사	최옥순	12/10	10,000
	권민경	11/25	10,000
미리우씨곡 키움센터	김민주	11/25	50,000
	문주하	11/27	10,000
밀인사	록경	11/24	10,000
	법수연	11/24	10,000
	정정희	12/1	5,000
	김재영	12/2	10,000
백월사	김강미자	12/2	10,000
	반야심	11/30	10,000
법천사	법우	12/6	20,000
	인자심	12/6	10,000
	유승태	12/6	10,000
	김미혜	12/6	10,000
법향사	승원	12/20	10,000
	묘원화	12/20	10,000
벽룡사			
벚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12/3	50,000
사원명 무기명	이진승	11/21	10,000
	하명순	11/25	10,000
	남영애	12/1	30,000
	이진승	12/9	10,000
	신효규	12/11	20,000
	무명씨	12/15	10,000
	김연수	12/15	5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여진	11/25	10,000
	나석원	11/25	100,000
	김윤수	11/27	10,000
	정순득	11/26	10,000
수인사	이순옥	11/24	5,000
	박성호	11/24	10,000
실보사	박현정	12/2	10,000
	연화법	12/1	10,000
실지사	정혜정	12/1	10,000
	유승우	12/9	10,000
	이승태	12/9	10,000
	이서현	12/9	10,000
아동화관 어린이집	덕광	12/20	10,000
	보현	12/20	10,000
양지어린이 이집	전금선	11/27	50,000
	정동숙	11/27	5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11/25	50,000
	구미자	11/30	10,000
	최지영	12/7	10,000
	이현직	12/10	10,000
자석사	도우	12/7	10,000
	지현	12/7	1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12/10	50,000
	노점호	12/1	15,000
정각사	안한수	12/6	10,000

정각사	탁상달	12/8	10,000
	제석사	김연정	12/15 50,000
	지인사	송효제	12/16 10,000
	초록 어린이집	이지희	11/25 50,000
총지사	강혜란	11/25	20,000
	최해선	11/30	10,000
	김정환	12/1	10,000
	원당	12/8	10,000
	묘심해	12/8	10,000
	최영아	12/15	10,000
	홍수민	12/16	10,000
	신성희	12/17	10,000
	신명준	12/17	10,000
	신현태	12/17	10,000
통리원	김평석	12/5	10,000
포레스터7 어린이집	최유정	12/1	50,000
화음사	무명씨	12/1	10,000
	강점이	12/4	10,000
	무명씨	12/6	10,000
	강승민	12/10	5,000
	최영미	12/10	50,000
	우인	12/16	10,000
힐스 어린이집	보령심	12/16	10,000
	곽방은	12/10	50,000



코로나와 같은 재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예측 불가 전염병의 대유행

인류가 이 우주 지구에 출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사문제가 있었습니 다. 불기 2564(서기 2020)년에 맞이한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따른 전염병의 위기 사태도 그런 생로병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일체 중생은 늘 생사 문제 에 직면하지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 태는 100년 만에 맞이하는 아주 큰 문제입 니다. 보도에 의하면, 2020년 12월 20일까 지 전세계 확진환자 7천6백만여 명에 사망 자 1백6십9만 명에 달하니 참으로 심각합 니다. 100여 년 전인 1918년에 유행한 ‘스 페인 독감’은 2천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고 하지요.

다행히 지금 인류는 1년 만에 백신과 치 료제를 개발하여 이 사태를 수습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백신 접종이 시 작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 를 예견하지만, 아직도 이 사태의 끝을 정 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맹목적 믿음의 어려움

코로나19를 둘러싼 뉴스는 연일 우리에 게 공포와 괴로움을 줍니다. 뉴스만 보면, 이 사바세계가 고통의 바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고해라는 말씀과 더불어 해법을 주 셧었습니다. 바로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생사 고해를 벗어나는 길, 바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무엇을 믿으면 코

로나도 안 걸린다, 걸렸던 코로나도 다 달 아 난다 운운하는 일부 종교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당이 코로나 전파 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문제를 맹목적인 믿음을 통해 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확산 시켜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지 요. 물론 코로나시대에 불안이나 공포심 때 문에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겠지 만,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어리석고 무지한 대처는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학자들의 연 구에 의하면, 중세 유럽 가톨릭교회가 페스 트에 잘못 대처하여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가 일어났다는 진단과 평가를 주목해야 하 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배우는 지혜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코로 나 시대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불교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많이 독송하 는 경전인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 십니다.

照見五蘊皆空 조건오온개공
度一切苦厄 도일체고역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건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고통과 재 앙을 만나더라도, 코로나사태와 같은 재앙 을 겪더라도 ‘오온(五蘊, 다섯 가지 쌓임)’

즉, ‘나’라는 것이 공하여 실체가 없는 연 기, 무아라는 정견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 리는 늘 내가 있다고 내가 영원하다고 착각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두 렷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받는 두려운 나 라는 실체가 본래는 없습니다. ‘내가 있다’ 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오 온이 무아(無我,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나)” 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반야지혜 로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 수행하며 언행 닦아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가요? 가장 합리 적이지 않나요? 저 하늘에 있는 신이나 그 어떤 것을 믿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보 다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밝히고 서로 도와서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 이 더 나은 길이 아닌가요?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 고 행하여 코로나사태와 같은 생사고해에 서 벗어나려면 매일 불교 경전을 열심히 공 부하고 정기적으로 선지식의 범문을 들으 며, 기도 수행하여 언행을 닦아야 합니다. 어떤 고통과 재앙도 인연법으로 오는 것이 고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하여 전문가 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조심하되 지나친 공포심이나 두려운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반야심경의 말씀처럼 바른 안목으로 살펴 평상심으로 이 사태를 지혜롭게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2020 동해중학교 백일장 최우수작

바다를 밝힌다

3학년 최시우 군

새벽의 바다는
등대지기를 부른다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그를 깨운다
등대의 불빛은
물안개가 얇게 깔린
바다를 비추고
잔잔한 파도 위 그 물안개를
파고들어 천천히 안개 안의
어둠을 헤쳐나간다
이내 고등어잡이 어선에
빛의 끝이 닿는다



가벼운 손인사로 빛의 길을 열고
땀내와 비린내로 물들 어선과
물안개 사이로 함께 나아간다
등대의 빛을 꺼야하는 때가 왔다
작고 소중한 그의 미래가 오고
등대지기는 그를 안아
그의 삶이 담긴 등대에
그를 세운다
달이 뜨고 새벽이 찾아오면
다시 바다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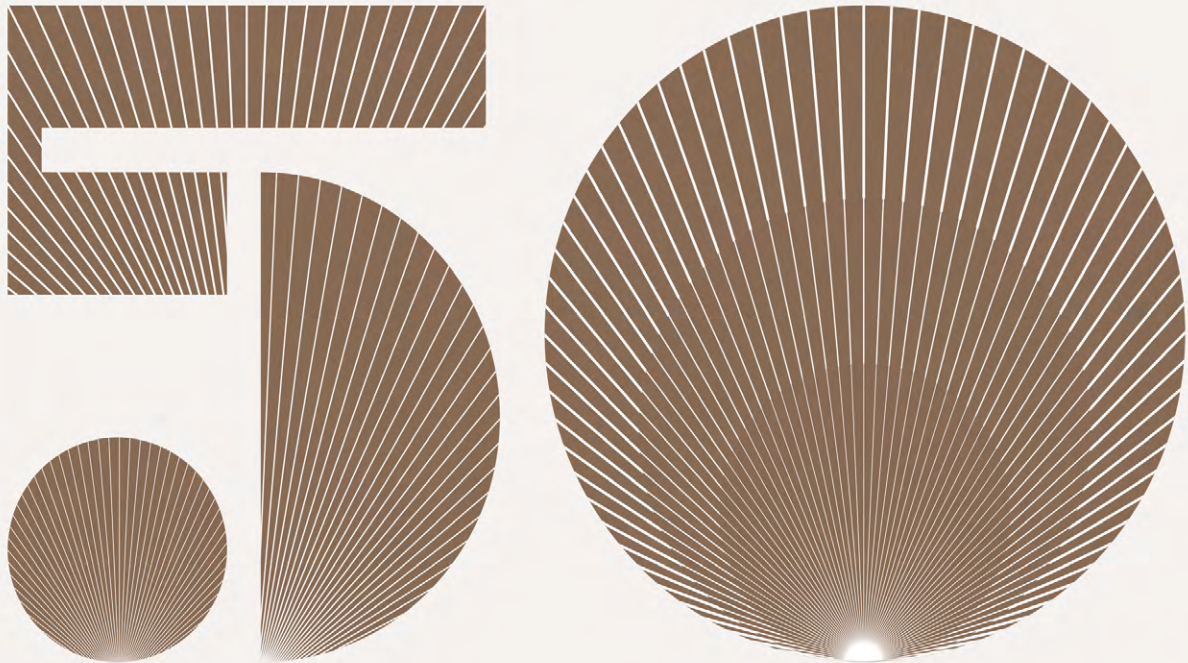
〈작품 해설〉

등대지기는 ‘등대의 불빛’과도 같은 끝없는 노력을 통한 성과로 ‘바다’라는 인생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는 ‘고등어잡이 어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손인사’라는 간단하지만 친밀한 우정의 표식으로 서로의 길을 열며 오붓하게 나아가는, 우 정을 지닌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끝에는 ‘작고 소중한 그의 미래’인 자손이 남 아있습니다. 그는 등대의 불빛을 꺼야 하는 시기가 오면 그의 자손을 그의 노력, 그의 삶이 담긴 등대를 맡기는, 자손을 위해 헌신하여 기틀을 만드는 책임감을 실천하고 나서야 등대 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끝없는 노력을 하고 친밀한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으 며 자손을 위한 기틀을 만드는 책임감을 지닌 아버지를 뒤따라 자신의 인생, 그의 바다에 불빛을 비춥니다.

불교서적 월간베스트 (12/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낯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2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홍창성	운주사
	3	좋은 말씀 : 법정스님 법문집	법정스님 / 맑고향기롭게	시공사
	4	조용현의 영지 순례 : 기운과 풍광 인생 순례자를 달래주는 영지 23곳	조용현	불광출판사
	5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충버스
	6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법	법륜스님	정토
	7	생명 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 생명 현상과 연기 그리고 공	유선경 / 홍창성	운주사
	8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總
指

총지의 역사를 찾습니다

歷
史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역사가 하나 들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공모 사료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 종보실
- Tel : 02-552-1080
- 보낼 곳 : 우편 및 이메일
- E-mail :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양지동 제1복지회관 5년간 수탁

성남시,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운영 재신임



자료사진=양지동 제1복지회관 제공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 이하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해 오던 양지동 제1복지회관(관장 : 서영주)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

지 5년간 다시 운영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2일 민간위탁자 선정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14곳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

법인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35번길에 위치한 양지동 제1복지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건물로 도서관과 경로당,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원관리 △영유아보육 및 교육 △장애인 복지 사업 등 지역 사회의 복지 사업 메카로 자리매김 해왔다.

사회복지재단과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위 수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사회복지재단은 협약서에 적시된 운영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유지 보수를

위한 일부 비용을 충당한다.

이밖에도 시설물의 안전과 지속을 위한 법적 책임을 맡는다.

사회복지재단 김태원 과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여러 제약이 많았으나 그동안 종단의 책임 있는 운영으로 신임을 받아 재위탁이 되었다.”며 “양지동 제1복지회관은 어린이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종합복지관으로서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재단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500만 원을 회사했다.

석관실버복지센터, 공식 홈페이지 개설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세대 공존의 ‘장’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 인선 정사) 산하 복지시설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 나석원)가 지난해 12월 1일 공식 홈페이지(http://석관실버.com)를 새로 개설했다.

센터 소개 및 시설 안내,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용 안내, 특화사업 안내, 각종 소식과 건의를 위한 게시판 등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했다. 또한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르신이

행복한 곳을 만들기 위한 센터의 이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랜선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세대 공존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개방 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직접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센터의 2층 테라스와 옥상은 각각 ‘힐링 쉼터’와 ‘꿈꾸는 옥상정원’이

라는 친근한 명칭으로 새로이 단장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힐링 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간단한 취식과 영화 관람을 준비 중이며, ‘꿈꾸는 옥상정원’에는 평상과 바비큐그릴이 준비되어 있어 도심 속 캠핑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문의 02)957-9923



김규현 화백 통리원에 그림 선사

네팔 학생 후원에 감사의 뜻

네팔 안나푸르나 산기슭 학교 학생 돕기(본지 252, 253호 11면 기사 참조)를 주선해온 김규현 화백이 지난해 12월 28일 통리원을 방문에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예방하고, 종단 후원에 감사의 뜻으로 그림을 선물했다.

종단은 지난해 11월 네팔 부메학교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후원한 바 있으며 이를 김 화백이 추진해왔다.

그림은 안나푸르나 마차푸차레 봉우리를 중심으로 별이 빛나고 있으며, 산 아래는 불교의 성지 네팔 사원과 수행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김 화백은 베이징 중앙미술대학과 라싸의 티베트대학에서 수인목



김규현 화백

관화와 탕카를 연구하고, 2015년부터 네팔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네팔로 돌아갔다.

총지장학금, 불교 언론인 자녀에 수여

지난해 12월, 한국불교기자협회 통해 전달

2020년도 불교 언론인 자녀에게 수여하는 총지장학금이 최호승 월간 불광 편집장 자녀인 최아영(교동초 1) 양에게 전달되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신성민, 이하 불기협)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조계사 설법전에서 개최한 ‘2020년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에서 종단을 대신해 신성민 회장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수상자와 시상

자만 참여한 가운데 발령체크,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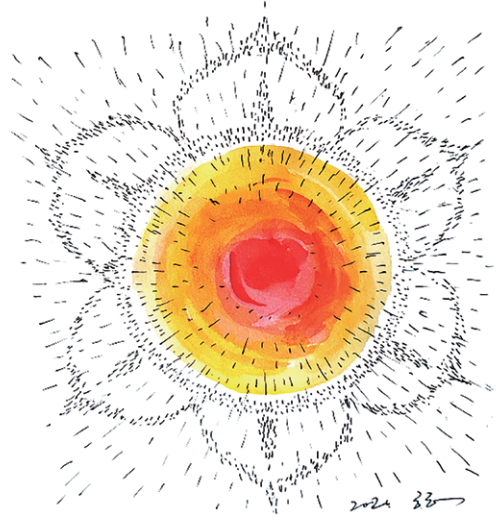
2019년도 신설된 총지장학금은 종단에서 불법 흥포를 위해 애쓰는 기자들의 자녀들에게 매년 후원하기로 결정한 이래 두 번째로 전달된 것이며, 이와 관련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불교계 발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노력하는 언론인들을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후원할 계획이다.”고 장학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상 대상은 ‘코로나19, 채식을 돌아보라’를 기획연재 한 윤호섭 불교TV 기자에게 대상인 선원빈상이 수여됐다.

총지스케치

2021 새해에는...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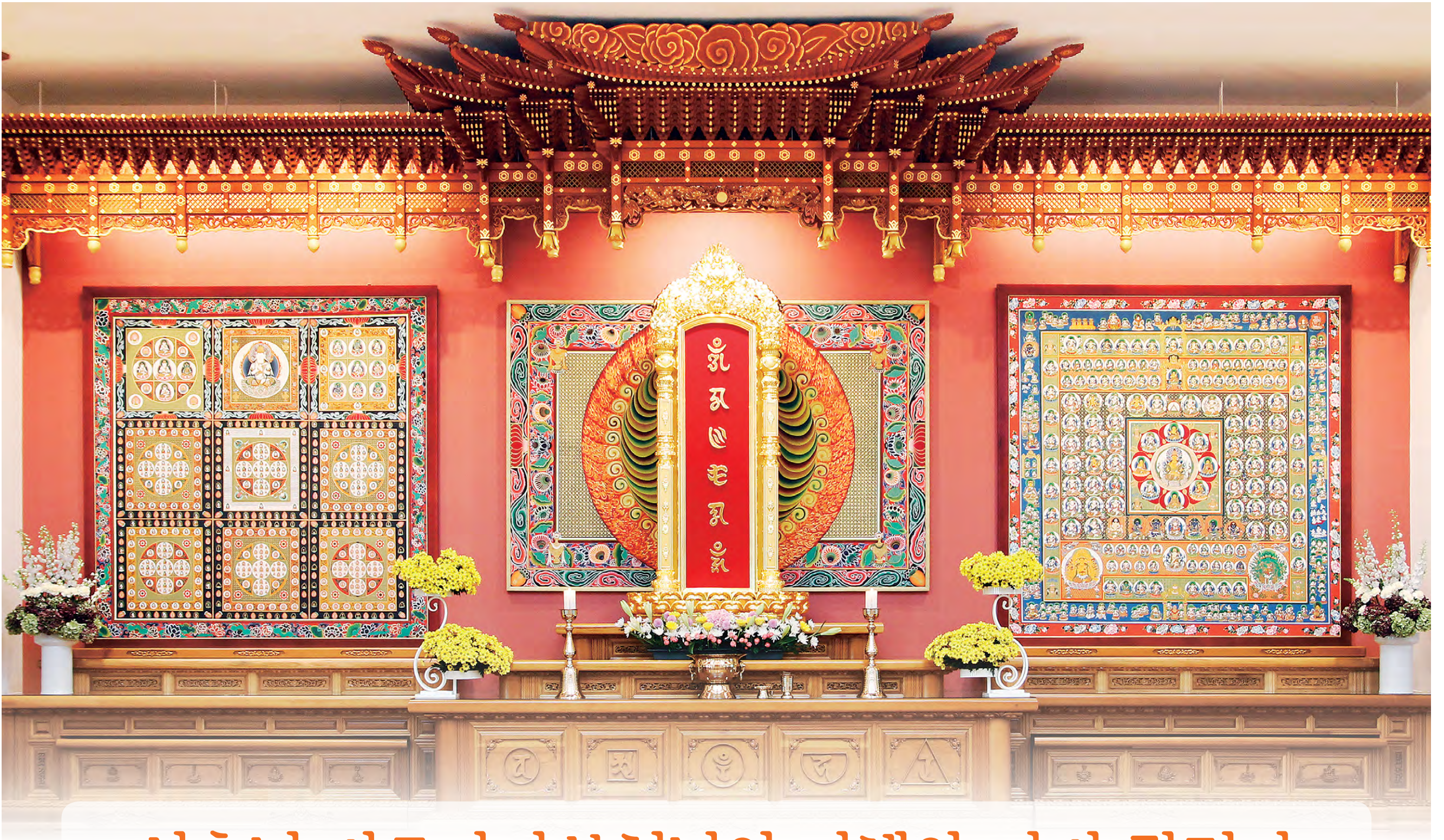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인 '출몰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경우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법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사동1가)	(063)224-4358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삼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지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정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신축년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 령 법공 대종사

통 리 원 장 인선 정사 중 앙 종 의 회 의 장 우인 정사 사 감 원 장 법경 정사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원당	밀인사 주교 록경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법상	만보사 주교 안성
재무부장 덕광	관성사 주교 인선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법등	백월사 주교 해광
교정부장 승원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해안정	법향사 주교 법우
종무원 일동	벽룡사 주교 승원	밀행사 주교 행원심	단음사 주교 남혜	중원사 주교 정정심
	시법사 주교 서강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립사 주교 도관	혜정사 주교 진일심
중앙종의회	실지사 주교 덕광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수현	
사감원	지인사 주교 승효제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법일	
원의원	총지사 주교 원당	실보사 주교 서령	승천사 주교 지선행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시정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자석사 주교 도우		
법장원		정각사 주교 법경		
중앙교육원		화음사 주교 우인		
밀교연구소		동해사 주교 법선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